



■河成美씨 (경남지부 사무국장)… 평소 침착하게 말없이 일할하기로 소문난 하국장이 연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연인즉 87년도 경남지부 건강검사사업을 완성화시키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로 동문서주하기 때문. 밝게 빛나는 경남지부의 87년도 청사진이 자못 금급.

■金秉基씨 (제주도지부사무국장) … 막내



딸 金明姬양이 지난 2월26日 서울 大学校를 卒業했다. 그리고 서울 MBC放送局의 “리

포터”試驗에 합격, 3月 1日부터 勤務中 이라고.

아버지 金국장은 氣分이 좋아서 연상 싱글빙글한다고 매우 만족한 모양이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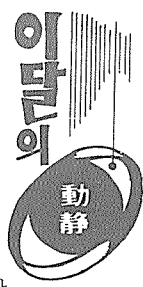
■박균중씨 (본부 조사연구부) …충각인 박균중씨가 4월18일 오후 2시30분 안선자양과 파랑새예식장에서 화촉을 밝힌다.

평소 아무말없이 일할하기로 소문난 박균. 이제는 술도 끊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겠다고 결심이 대단하다.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축원 한다



■金鳳守씨 (본부총무과장)…서울특별시 지부 사업과장에서 본부 총무과장으로 발탁되어 소관업무를 파악하라 바쁜속에



서도 차남인 圭浩군의 장가 보내기에 더욱 정신이 없는것 같다. 결혼식은 3월28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내 경남예식장에서 식을 올렸다. 축하를 드린다.

새 며느리가 온다고 연신 싱글빙글……

■南贊重씨 (서울특별시지부 사업과장) …

지난 2월21일자 종이 한장에 천리길을 멀다 않고 하루아침에 부임한 엘리트 과장.

작은 살림에서 큰살림을 하느라 눈코뜰새 없는 모양이다.

더우기 서울특별시장의 방문시 지부의 건강관리사업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국민 건강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가있어, 소가 언덕을 비비듯 선진적인 사업을 이끌어야겠다고 기염이 대단

하다.

■인명숙씨 (서울지부 간호원) … 요즈음

그녀의 얼굴엔 사랑과 행복의 웃음이 가득했다. 사연인즉 지난 1월25일 출산한 딸 조성애양의 커가는 모습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신기하기도 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주는 것이 더 없이 기쁘기 때문이라고…….

■하주연씨 (본부 홍보부) …아기하마(?)

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녀가 4월 4일 오후 1시 회사원인 김동수씨와 경남예식장에서 결혼을 한다.

살아온 날보다, 새로이 위어가야 할 날이 더 많은 그녀의 앞날에 행운과 행복만이 가득차기를 기원한다.